

평창 열기 뺨치는 '아육대'부터 90년대 시간여행 '토토가'까지

설 연휴 볼만한 TV 예능프로그램

'아육대' 볼링 신설...실력파 볼러 총출동 '토토가' 17년 만에 몽친 H.O.T 출연 주목 연애·여행 접목 리얼리티 '로맨스 패키지' 방탈출 가족게임쇼 '문제는 없다' 등 눈길

설 연휴가 시작됐다. 3박4일의 연휴, TV는 좋은 친구이자 보물상자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 TV를 가까이 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TV 보는 재미를 배가시켜줄 특집 예능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이돌 대잔치를 보고 싶다면 #아육대 #토토가
명절 대표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아육대'가 돌아온다. '아육대'는 아이돌 스타들이 모여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승부를 가리는 프로그램. MBC는 15일(오후 5시40분), 16일(오후 5시10분) 이틀간 '설특집 2018 아이돌스타 육상·볼링·양궁·리듬체조·에어로빅 선수권대회'(2018 아육대)를 방송한다. 전현무와 이특(슈퍼주니어), 보미(에이핑크)가 진행하는 이번 '2018 아육대'는 볼링 종목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엑소, 하이라이트, 워너원 등 실력파 아이돌 볼러들이 프로경기 못지않은 뜨거운 접전을 벌인다.

2001년 해체 후 17년 만에 다시 몽친 H.O.T 무대를 만나며 MBC '설특집 무한도전'도 설 연휴 주목할 만한 TV 콘텐츠다. 17일(오후 10시25분)과 24일(오후 10시40분)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무한도전-토토가3'은 H.O.T 멤버들과 '무한도전' 멤버들의 첫 만남과 공연 준비 과정, 1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펼쳐지는 대망의 재결성 공연까지 소개한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1990년대로 돌아가는 음악 시간여행 콘셉트의 '토토가'(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를 기획하며 2014년부터 H.O.T와 접촉했고, 4년 만에 섭외에 성공했다.

●인연 맺기를 엿보고 싶다면 #로맨스 패키지 #자리 있나요

SBS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로맨스 패키지'는 2030 세대 사이의 트랜드로 떠오른 '호강스(호텔+바강스)'와 '연애'를 접목시킨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16일(오후 8시35분), 17일(오후 11시10분) 방송될 '로맨스 패키지'는 '연애하고 싶은 도시 남녀들을 위한 3박4일의 짜릿한 주말 연애 패키지'를 콘셉트로 모두 10명의 2030 청춘 남녀들이 출연한다. 이들은 불타는 금요일, 호텔에 체크인 순간부터 월요일



1 설 연휴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이 안방 시청자를 찾는다. 1 MBC '아육대'에서는 우수소녀 성소의 리본연기를 볼 수 있다.



2 설 연휴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이 안방 시청자를 찾는다. 2 '아육대' 출연자들의 열띤 응원전도 볼거리다. 3 한혜진과 전현무는 SBS '로맨스 패키지'에서 출연자들의 '연애 가이드'로 나선다. 4 연예계 스타가 가족과 방탈출 게임을 펼치는 MBC '문제는 없다!'. 5 tvN '자리 있나요'는 고속도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일 체크아웃 순간까지 자신의 연애 상대를 찾아 나선다. MC 전현무와 한혜진은 패키지 일정 안에서부터 게임 진행, 상황 중계와 연애 상담까지 도맡는 '로맨스 가이드'로 변신한다.

●케이블채널 tvN의 2부작 파일럿 프로그램 '자리 있나요'는 고속도로 여행자들을 따라가 보는 포맷이다. 휴게소에서 주말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교감하고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김성주와 김준현, 단단으로 꾸러진

진행팀은 주말 휴게소를 찾아가 여행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여행을 떠난다. 동반 여행을 허락받은 MC들은 여행객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그들의 리얼한 일상을 공유한다. 16일(오후 9시50분), 18일(오후 6시20분) 방송.

●머리 쓰는 재미를 즐긴다면 #문제는 없다 #비밀의 정원

MBC 미스터리 게임쇼 '문제는 없다!'(18일 오전 9시55분)는 스타와 스타 가족들이 미스터리

한 게임룸에 들어가 문제를 추리하고 단서를 찾아내 해결하는 '방탈출 가족게임쇼'다. 현영과 딸 최다은, 양, 홍인규와 아들 하민 군, 정태우와 아들 하준 군, 비아리와 여동생 김한별 씨가 게임에 나선다. 방송인 전현무가 진행을 맡고, 정시아 권혁수 유어(오마이걸) 승관(세븐틴)은 패널로 나서 긴장감을 돋운다.

16일(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케이블채널 tvN 설 특집 예능프로그램 '비밀의 정원'은 정형돈, 성시경, 장윤주 등 MC와 출연진들이 실제

심리테스트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기를 나눈다. 직업 특성상 방송에서 자신의 감정과 진짜 심리를 잘 드러내지 못했던 연예인들은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과 심리상태를 알게 된다. 전문가 패널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양재웅 전문의가 참여, 심리테스트를 기반으로 연예인 본인도 몰랐던 일상생활 속 심리상태와 행동분석까지 짚어낸다. 2부작으로 방송되며 2회는 24일(밤 12시) 방송된다. 김원경 기자 yummy@donga.com



'조선명탐정3' '홍부' '골든 슬럼버' 설 극장가 3파전

설 연휴 볼만한 한국영화 3편

예년보다 짧은 연휴다. 주말까지 겹쳐 나흘이다. 차려 지내고 가족도 만나고 휴식도 가져야 하는 빠듯한 일정. 시간이 부족할수록 '투자 대비 효율' 측면에서 영화만한 게 없다. 이번 설에는 3편의 한국영화가 관객을 찾아간다. 코미디로 명절을 조준한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익숙한 고전을 재해석한 '홍부', 누명을 쓴 순수한 청년의 이야기 '골든 슬럼버'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엄선 과정은 필수. 세 편을 '3색 지수'로 살펴본다.

●신선 지수...홍부) 조선명탐정3) 골든 슬럼버

다행히 비슷한 장르도, 비슷한 이야기도 아니다. 저마다 새로운 소재를 풀어내는 게 특징. '홍부'는 고전 흥부전을 비틀어 호기심을 당긴다. 작가 흥부가 바라보는 양반 형제의 사연이 흥부전의 소재가 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세상'을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전개가 목격된다. 물론 기발한 시도가 작품의 완성도까지

지 보장하지 않지만. '조선명탐정3'는 코미디인데도 얹히고설킨 탐정극으로 추리욕구를 자극한다. 일거양득의 재미가 있지만 자칫 알보다가는 '무슨 이야기'를 연발하게 된다는 게 함정. '골든 슬럼버'는 권력에 맞선 순박한 청년의 고군분투기다. 우정, 그 시절의 향수를 담아내려다가 범접적으로 급회전한 느낌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열연 지수...골든 슬럼버) 조선명탐정3) 홍부

세 편을 통틀어 배우의 도전, 변화 측면에선 강동원이 가장 반갑다. "작하게 살면 안 되냐"고 외치는 택배기사의 순수한 얼굴이 이토록 어울릴 줄이야. 몸무게를 늘리고 헤어스타일까지 '뽀글 머리'로 바꿨다. 권력에 맞서 울부짖는 그의 얼굴을 보면 왠지 서글퍼진다.

사실 배우들의 앙상블에선 '조선명탐정3'의 김명민·오달수를 따를 순 없다. 벌써 8년째 시리즈를 함께 해왔으니 '찰떡 호흡'은 당연한 결과. 다만 예상한 그 만큼의 모습을 보인다. '홍부'는 고 김주혁을 제외하면 주요 배역으로 나선

배우들에게서 새로움이나 노련함을 찾기 어렵다. 여러 배우가 나오지만 각자의 역할에 녹아들었는지도 몰음표, 존재감이 없거나 과하게나.

●매력 지수...조선명탐정3) 골든 슬럼버) 홍부

이런저런 계산 없이 웃고 싶다면 '조선명탐정3'가 안성맞춤이다. 시리즈가 계속된 힘은 그만큼 관객이 선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엔 작정하고 웃기려는 제작진의 상업적인 장치도 늘었다. '명절=가족=코미디'로 이어지는 공식이 가장 적중한 영화다.

'골든 슬럼버'는 10~20대보다 30~40대, 여성보다 남성 관객이 선호할만한 작품. 순수하게 꿈을 키운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이들, 그날의 감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의 취향을 저격한다. '홍부'는 매력적인 기획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못내 한계로 남는다. 방대한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흐름을 놓치지 일쑤. 중요 인물인 대비 역으로 가수 김완선이 느닷없이 등장하는, 뜬금없는 상황도 집중력을 깨트린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올 시즌 마지막 'S더비'...클래식하게 붙는다

(프로농구)

설 연휴 볼만한 스포츠 경기

18일 SK-삼성 서울 라이벌전 '클래식 데이' 설 당일 삼성화재-현대캐피탈 'V클래식'도



올 설 연휴(15~18일) 기간은 평창동계올림픽 뿐 아니라 친척들끼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스포츠 빅 매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프로농구는 정규리그 최종 6라운드 일정에 돌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15일 오후 3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모비스(4위)와 전주 KCC(2위)의 맞대결이다. KC는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하면서 호시탐탐 정규리그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KCC마저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SK와 삼성은 18일 오후 3시 올 시즌 마지막 서울 라이벌전인 'S더비'를 치른다. 원정팀 삼성은 이날 아마추어 시절 삼성전자 유니폼을, SK는 2000~2001시즌 유니폼을 입는 이른바 '클래식 데이'로 재미를 더했다. 과거 농구대잔치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팬들에게는 좋은 볼거리다.

프로배구 V리그는 플레이오프의 향방을 가릴 빅 매치가 준비되어 있다. 남자부 전통의 라이벌인 현대캐피탈(1위)과 삼성화재(2위)는 16일 오후 2시 대전에서 만난다. 1,2위 간 대결치고는 승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이들의 대결은 순위 싸움을 떠나 늘 관심을 모은다. 여자부에서는 17일 도로공사(1위)가 홈 김천으로 IBK기업은행(2위)을 불러들여 맞대결을 펼친다. 명절에는 전통 스포츠 씨름도 빠질 수 없다. 정지영 기자 stop@donga.com

겨울스포츠 프로농구는 설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는다. SK와 삼성은 18일 오후 3시 올 시즌 마지막 서울 라이벌전 'S더비'를 치른다. 원정팀 삼성은 아마추어 시절 삼성전자 유니폼을, SK는 2000~2001시즌 유니폼을 입는 '클래식 데이'다. 예전 농구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팬들에게는 좋은 볼거리다. 사진제공 | KBL

'IBK기업은행 2018 설날 장사씨름대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체육관에서 개최된다. 14일 태백급(80kg 이하) 예선전을 시작으로 메인이벤트인 백두장사(140kg 이하) 결경전은 18일 펼쳐진다.

해외축구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토트넘)이 19일(한국시간) 오전 1시 FA컵 8강전에서 3부 리그 팀 로치데일을 맞아 골 사냥에 나선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도전장을 내민 고진영(하이트)은 15일부터 나흘간 호주 애들레이드 쿠용가GC에서 열리는 ISPS 호주여자오픈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정지영 기자 stop@donga.com